

# 광주시, 1만3000세대 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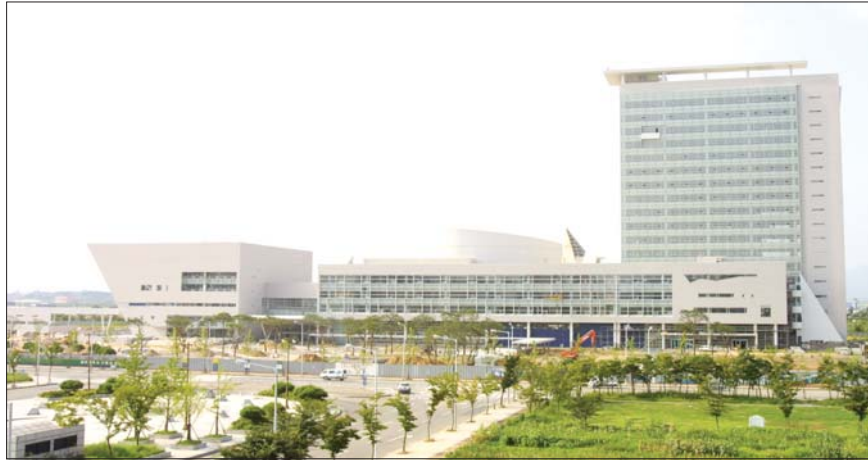
### 산정·장수동 일원 최종 입지선정 송정역 인접 광역교통 여건 양호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 마련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1만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주 산정 공공주택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2·4 공공주택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 발표 이후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신규 택지공급 확대를 제안토록 해 광명시흥, 부산 대저와 함께 산정지구가 1차 입지로 선정되는데 산과 역할을 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산정 공공주택지구는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평) 부지에 광주형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시설, 자족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지구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과 인접해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하남진곡산단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만 아니라 무안과 나주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하남

산단, 진곡산단 등이 위치하고 하남지구, 수완지구 등과도 인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정부와 LH, 광주시는 산정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한 다양한 개발방향을 논의 중이다.

우선,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

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물류·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질 좋은 광주형 평생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권 내 세대가 서로 어울리는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공원, 학교, 체육과 크 등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소통형 주거단지를 만들고 특히 38만㎡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개발구상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격 논의돼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정 공공택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 착수에 이어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이날부터 토지거래 행위 가 전면 제한되고 금명간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35%는 임대, 나머지는 분양공급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목포시 3·1절 근대역사관 무료개방

목포시가 오는 3월 1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목포근대역사1·2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목포근대역사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지만 3·1절인 오는 1일은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특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목포근대역사관 2관 2층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영웅, 그날의 기억을 건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다. 특별전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목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관련 영상과 유물을 전시해 목포의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일괄지급

여수시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권오봉 시장이 전남도에 지속 건의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이행한 결과 전년도보다 한 달 반 일찍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일괄 지급하게 됐다.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9969명이며 지급액은 60여억 원으로, 전액 지역 화폐인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패불도 복장유물

/상주시

## 상주시 '영산회 패불도' 보물 지정

상주시는 '상주 남장사 영산회 패불도 및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116호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남장사 영산회 패불도는 높이가 11m 정도의 대형불화로, 1776년(정조1)에 조선 후기 대표 수화승인 유성(有誠)을 비롯해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23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했으며 18세기 후반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패불의 복장유물은 총 3점으로 복장낭과 동경, 복장낭 보관함 각 1점이다. 현존하는 복장낭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보관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상주(경북)=김홍식 기자 gi2136@

## 전국원전동맹, 정세균 총리 면담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 해야”

### 원전안전 문제 관련 정부 대책 건의 “안전교부세, 지역에 최소한의 보상”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원전동맹 5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번 면담에서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상익 함평군수와 정세균 총리와 5개 지자체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의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

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할 뿐 아니라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도 가능해 원전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한빛원전 격납건물 공극(구멍),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등 원전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근지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있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 광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1.8억 투입

### 지역산업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광양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돼 총 21억 8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개 사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다.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플랜트 고숙련 인재 양성과정과 산업현장 안전·위험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상·하반기에 운영되며 총 68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전남형 주력산업 고용안정 프로젝트 기초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계설비, 산업 운송장비, 전기설비공사, 2차 전기 총 4개 과정을 통해 130명을 양성하며 2월 23일 상반기 교육을 시작한다.

작년 15명의 대기업 취업성과를 거둔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는 필기·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퇴직자와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현재 지게차 과정 20명을 모집 중이며 오는 3월 17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한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 부산시, 드론활용 낙동강하구 생태 파악

### 지형·식물 군락 변화상 조사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에 형성된 사주섬, 갯벌 등의 지형과 식물 군락 변화상을 조사하기 위한 '드론 활용 모니터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생태계 안정성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지난해 부산시 컨소시엄이 수행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가운데 '낙동강하구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드론 항공사진을 분석, 접근이 어렵고 광범위한 낙동강하구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올해 조사는 철새서식처(사주섬·갯벌)와 먹이식물(새섬매자기·잘피류 등) 군락의 유동적인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자인 ▲을숙도 하부 ▲명지주거단지 앞 ▲대마등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 등뿐만 아니라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대포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철새 먹이식물인 새섬매자기의 분포 가능성과 199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한 잘피(애기거머리말)가 군락으로 분포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